

Preliminary Judges Commentary

The work is expressing the geological historical difference and uniqueness of demilitarized zone between south and north with the metaphor of nature and human from the view of a mediator called a shaman and the red crowned crane. The meaning of two existences come more interesting as an existence which is more symbolic than reality. The shaman who appear in the video is a person who transcends region and gender and communicates with the spiritual existence, and has the ability that can handle it. It plays a role to solve the human based on this ability.

Cranes are also considered a rare existence symbolizing longevity and divinity. Here, the human shaman transcends time and space with the memory and gaze of the cranes though the contact with the cranes living in the DMZ. The angle of the video also resembles the gaze of a god or crane swimming freely and looking down the ground, taking us between the snow-covered mountains and the soldiers standing in a row across the fields. The DMZ, a place that exists in reality but is not actually accessible, remains an unknown space for us, and at the same time has various possibilities for imagination and interpretation. Through 2 existences of shaman, who sees the invisible and the cranes which freely crosses the unknown area, it is a work that can look into the writer's place and cultural questions. (Ham Hyekyung)

제 21 회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 네마프

예선 심사위원 평

3D 애니메이션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남북 비무장지대(DMZ)가 가진 지리적, 역사적 차별성과 고유성을 신과 인간, 자연과 인간의 은유로서 무당과두루미라는 매개자의 시선을 표현하고 있다. 이 두 존재는 실제보다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가 더 흥미롭게 다가온다. 영상에 등장하는 무당은 지역과 성별을 초월한 자로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며,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인간과 신의 세계를 매개함으로써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두루미 또한 장수와 신성을 상징하며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존재로 여겨진다. 여기서 인간 무당은 DMZ 에 살고 있는 두루미와 접신을 통해 두루미의 기억과 시선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경험을 하게 된다. 영상의 앵글 또한 자유롭게 유명하며 지상을 내려다보는 신 혹은 두루미의 시선과 닮아 있는데, 눈 덮인 산과 들판을 가로지르며 줄지어 서있는 군인들 사이로 우리를 데려가 준다.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인 DMZ 는 우리에게 여전히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상상과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샤먼의 존재와 미지의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두루미 라는 이 두 존재를 통해 작가가 가진 장소적, 문화적 의문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함혜경)